



만행을 마치고 다시 선정으로 불기 2555년 5월 17일 하안거 결계일을 맞아 전국 100여 개 선원과 사찰에서 2200여 수좌들이 일제히 치열한 구도정진에 들어갔다. 하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납자들은 결제 하루 전날인 16일 저녁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 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 간의 정진에 매진한다. 사진은 16일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좌들이 선원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3면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조선왕실의궤... 오대산에

월정사·강원도 등 오대산 사고 보관 주장에 문화재청은 '글썸'

한수원 조선왕실의궤 보관처를 두고 한수위·지자체와 문화재청이 미묘한 의견차를 보여 실록 한수 때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관리위원회와 월정사, 강원도 지자체들은 의궤가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규장각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될 경우 수많은 문화재들 속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고, 관광 도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면 의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조선왕실의궤가 월정사 소유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교계 및 지자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와 강원도민들은 2006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한수 때 서울대 규장각 소장 결정에 실망한 바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왕실의궤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쿠카 호텔에서 조선왕실의궤한국 기념 연회를 5월 13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위 관계자들은 의궤가 본래 보관됐던 강원도로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은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빛난다. 강원도에 위치한 월정사는 조선왕조로부터 의궤를 수호할 수호총섭의 역할을 맡아왔다. 의궤 한수가 결정된 만큼 다시 오대산에 보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선왕실의궤가 보관됐던 오대산 사고가 있는 평창군도 의궤가 강원도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석래 평창군수는 "의궤 보관을 위한 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 최병희 시장도 의궤가 강원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왕실의궤는 일본 종의원에서 반환이 비준됐으나 한수를 반대하는 일본 자민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었다. 그

러나 자민당이 18일 열린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협정 심의에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무난히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을 제외하고 한수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왕실의궤한수가 27일로 예정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게 올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의궤가 한수돼 국내에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의궤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보존처리를 마친 의궤는 일단 문화재청에 보관되고 향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보관처를 논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현재도 내부적으로 조선왕실의궤 보관처에 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보관처에 관해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일단 문화재청에 보관하게 된다. 월정사 사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문화재를 모두 전주 이씨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의궤는 당초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것이고 월정사는 수호사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변함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837호 CONTENTS

현장속으로 한·중 천대종 조사기념탑 개금불사 회향 5



특집탐방 조선왕실의궤한수위 일본 탐방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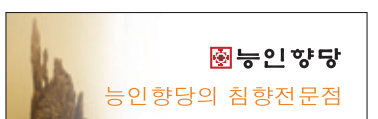
특집 김재일 대표가 걸은 길 18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침향염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천진영 기자

불교시민운동의 큰 별 지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별세



김재일 대표가 5월 15일 오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생태 환경운동 등 불교시민운동을 이끌어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사단법인보리 이사장)가 5월 15일 오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숲 해설가협회 공동대표, 조계종 환경위원회 명예위원, btn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언론·환경·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그은 큰 역할을 해왔다. >관련기사 18면 조동섭 기자

불교, 통일을 말한다

25일,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지승)는 5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5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을 위한 현 정세의 분석을 하고,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이순환(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이송환(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일산에 바이오대 개교

의·약·한의학 바이오 분야 결집, 경기북부 최초 4년제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가 5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바이오메디 융합캠퍼스를 개교했다.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에는 기존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의대와 한의대, 바이오시스템대, 약대를 비롯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임상시험센터 등 관련

핵심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1단계 조성사업이 시작돼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으로 산학협력관과 강의동, 종합강의동이 완공된 상태다.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약학관은 8월 완공된다.

이날 개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정각원장 법타 스님, 사무처장 중성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성 고양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최초의 4년제 대학 설립을 축하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날 "바이오메디 융합캠퍼스를 통해 제2 건학 운동을 배가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국대가 건학이념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세계로 전해주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메디 캠퍼스에는 약학대 학 신입생 및 바이오시스템대학 신입생 일부, 의과대학 및 한의학과대학생 등 100여명이 이미 수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곳에서 2000명의 재학생과 230여 교수진이 생활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노우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경관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